

예배 및 모임안내

2019-42호 2019년 10월 20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27	11. 03	11. 10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정용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윤석진 형제	김영희 권사
헌 금 위 원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안 내 위 원	황희순 집사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호1~14장, 습1~3장, 학1~2장)
2. 말씀 나눔 - 친교실 정리 후 5번 교실에서 모입니다.
3. Sommerzeit 해제 - 27일 새벽 3시가 새벽 2시로 조정됩니다
4. 봉사자 기도회-매 주일 오후 12시 45분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5. 한국 방문 - 이 현 형제(21일)
6. 나눔의 시간 - 유미경, 박재기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새 교우	김민혜 자매 - 비올라 전공 이세현 형제 - 피아노 전공
새 교우	신홍중 형제 - 해군사관학교 위탁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22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8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6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레 18 : 1 - 5 (구p173) 김효종 집사
- 설 교 Predigt (3.Mose 18:1-5)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7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박재기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영적 성숙의 마당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신앙이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해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가족을 경험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는 성숙의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주님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모임을 세상 친구들의 모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Franklin Roosevelt 가 참석하던 Washington D. C.의 한 교회에 이런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Roosevelt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합니까?” 당시 교회 행정을 담당하던 성도가 아주 기막히고 훌륭한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참석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적 부흥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 /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원로목사)

* 거룩함은 쉽게 오지 않는다. 찌꺼기를 제하는 연단이 수반되며,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 존 비비어 -